

사회

남구 의료폐기장 허가 적정성 논란

개발제한구역 동일 목적시설 3000㎡ 이상 불허

3개 폐기시설 합하면 3170㎡... 광주시 감사 촉각

광주시 남구의 양과동 의료폐기장 소각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동일 목적 시설의 과도한 건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에 비추어 건축허가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의료폐기장 소각시설과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을 모두 합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건축허가 이후 현재 건축중인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연면적은 1127㎡다. 앞서 같은 해 8~10월 건축허가가 이뤄진 뒤 세워진 인근 음식폐기물 처리시설과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의 연면적은 각각 1003㎡, 1040㎡다.

모두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어지고 있는 이들 폐기물 처리시설의 연면적을 합하면 3170㎡다. 또 각 처리시설은 폭 6m~15m 가량에 불과한 토지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밀집

해 건축중이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다.

의료, 음식물,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이 모두 동일목적 시설물에 해당하는 데다가 각 시설이 사실상 연접해 총 3000㎡가 넘는 규모로 지어지고 있지만 관리계획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그대로 따를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청이 접수돼 총 연면적 3000㎡를 넘게 된 양

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허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폐기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은 모두 지난 2009년 7월 말~8월 초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지자체인 광주시 남구가 서둘러 건축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달라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라며 "광주시의 감사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강운대 시장의 지시에 따라 남구의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5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건축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왼쪽) 바로 옆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가운데)과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 잇따라 들어서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반값 등록금 집회 참석 정동영 보수단체 회원에 머리채 잡혀

15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보수단체 회원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정 최고위원 측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

은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로 열린 집회에 민주당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박부 최고위원 등과 함께 참석했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정 최고위원

에게 오후 5시30분께 인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지나가던 한 보수단체의 여성 회원이 달려들어 "민주당 빨갱이,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채와 목살을 잡고 흔들었다. 5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

은 정 최고위원 주변에 있던 이들의 제지로 현장에서 물러났으며 경찰에는 연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아원의 전 대선 후보이자 현 제1야당 최고위원에게 가해진 백색테러"라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곤 하지만 아침부터 청계광장 일대에 경찰력이 투입됐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경찰이 이를 방조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야 부녀자 연쇄 납치 미수범 검거

"여성에 말 걸었을 뿐"... 광산경찰, 30대 영장 신청

늦은 밤 도심 아파트와 대형 유통 할인매장 인근에서 귀가 중인 여성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15일 연쇄납치 미수범 김모(35·광주시 서구)씨에 대

해 약취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모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간식을 사러 나온 K(여·43)씨를 자신의 SUV 승

용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도망가자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에 실패하자 곧바로 장소를 옮겨 대상을 물색하던 중 모 대형 할인매장에서 일

을 마치고 귀가하던 P(여·38)씨를 보고 뒤쫓아가 납치하려다 P씨가 거세게 저항하며 소리치자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원인 김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왔다가 귀가 중인 여성을 보고 말을 건 것 뿐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부녀자를 납치하려는 의도가 성폭행이나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를 분석,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추적해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또 튜브 타다가...

고흥 이어 여수서 초등생 물놀이 사망

최근 바닷가에서 고무튜브를 이용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오전 8시55분께 여수시 신덕동 신덕 해수욕장에서 김모(11·경기도 성남시)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군은 전날 오후 5시께 이곳에서 친척들과 어울려 고무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됐다.

당시 김군과 함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촌 2명은 해수욕장에 상주하던 119 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고

흥군 영남면 남열리 앞바다에서 김모(29·서울시)씨 등 4명이 타고 있던 고무튜브가 물놀이 중 뒤집혔다. 이 사고로 김씨와 동생(24)이 실종됐다.

김모(여·32)씨와 이모(여·26)씨 등 2명은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씨는 숨졌다.

고무튜브 익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각종 고무튜브를 탈 땀 높은 파도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큰 만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춘 뒤 물놀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수원 현직 구청장 포커하다 현장서 적발

수원의 현직 구청장이 지인 등과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수원시 모구청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청장 A씨는 지난 13일 밤 10시30분부터 14일 0시40분까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자신의 집 근처 지인 소유의 20여㎡(5~7평) 규모 사무실에서 관동 190여만원의 걸고 지인 5명과 포커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커를) 같이 한 5명 모두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다. 2명은 이웃주민이고, 3명은 이 주민들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이날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말복을 맞아 이 사무실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한 후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음식배달원으로 가장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연합뉴스

술마시고 바다서 부표 잡고 4시간 시투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갔다 가 실종된 30대 남자가 부표를 잡고 4시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가까스로 구조.

친구들과 함께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해수욕장에 휴가를 온 A(33·전주시)씨는 15일 새벽 3시에 술을 마신 뒤 더위를 식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나 만조로 빨리진 조류에 휩쓸려 해변에서 멀어지다 결국 표류.

친구들의 실종신고와 함께 출동한 군산해경은 4시간여만에 해수욕장에서 서쪽으로 2km가량 떨어진 바다에 떠있는 어망 부표를 잡고 있는 A씨를 발견했는데, A씨는 "조류에 밀려 해변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부표를 발견해 그쪽으로 헤엄쳐 가 기다렸다"며 구조대에 연신 감사의 인사.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외국인 전화신고 민원 대응 빨라진다

광주경찰, 전화통역 확대

외국인 전화신고 민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빨라진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5일 외국인의 각종 전화신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2전화에서만 가능했던 경찰전화통역을 민

원실과 지구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주간에만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한국관광공사의 '티터콜1330'과 협약을 맺어 영어·일어·중국어에 대해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일제, 해외 조선인 독립운동 감시·통제

활동국가·직능·구성원 이름까지 파악

전남대 연구단, 자료 공개

일제가 해외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매우 면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일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조선인들의 활동국가, 직능 및 사상계열은 물론 구성원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파악해 감시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은 15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인 독립운동 단체를 정리해놓은 '국의조선인분체분포도(國外朝鮮人不體分佈圖)'를 공개했다.

가로 105cm, 세로 85cm의 지도

형태인 이 자료에는 조선인 해외 독립운동 단체 150여개가 교민, 여성, 청년, 유학생, 농민, 한인, 신문사 등으로 분류됐다.

중국, 소련, 미국 3개국에 분포된 독립운동단체를 공산당과 독립운동과 계열로 분류했고, 이름, 직책, 책임자, 구성원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연구단의 김재기 교수는 "국의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오사카의 한 서점에서 발견했다"라며 "조선총독부가 영사관이나 관원을 통해 해외 조선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10대 배달원 4명 여대생 집단 성폭행

광주서부경찰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5일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L(17)군 등 10대 배달원 4명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 등은 지난 12일 새벽 5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모텔에서 A(여·20)씨를 집단 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치킨집 배달원인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와 채팅을 한 L군을 추적해 거주지에서 체포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